

인재·사찰 불사 지원 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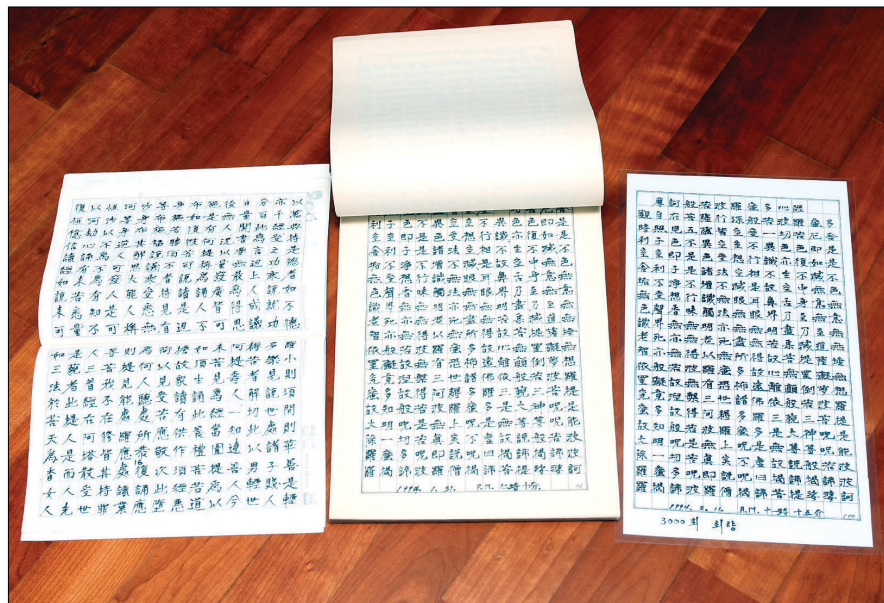
박 회장은 2005년 자행회 회장으로 취임해 자행회 부설기관의 시설정비를 돕고 원우들의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자해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모습. 박 회장은 '아이들이 부처'라는 걸 배우게 됐다.



박 회장(사진 두 번째 줄 가운데)은 제23회 조계종 포교대상에서 원력상을 수상했다.



박 회장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금강경>과 <반야심경> 등을 사경했다. 1994년 반야심경 사경 3000회를 회향하는 기념으로 남겨놓은 것들이다.

남의 말씀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행회는 1966년 이방자 여사가 설립한 정신지체장애인을 돕는 단체로, 산하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자해학교와 수방재활원, 자해직업재활센터가 있다.

박 회장은 보훈회 활동 중 이방자 여사와 인연을 맺었고, 2005년 회장으로 취임해 자행회 부설기관의 시설정비를 돕고 원우들의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자해학교에서 '아이들이 부처'라는 걸 배웠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며 돕고 있습니다. 평생 부모가 없어도 독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원이죠."

이런 노력으로 박 회장은 지난 2012년 정부로부터 '장애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3월부터 매일 나무아미타불 5천독 정군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득관 공책에 '2012년 3월 26일 1일 나무아미타불 5천독, 85세에 모든 것을 참회하고 편안한 죽음을 기원하며 기도 합장' 발원문을 적어놓고 바를 정(正)자로 일지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일정이 생겨 정군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시간 날 때 틈틈이 해 시간을 벌어난다.

"늘 준비하고 시간을 소중히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을 잡을 수 없던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하죠."

인터뷰가 있던 날도 약속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할 정도로 박 회장은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했다.

"기도하고, 책 보고, 도반을 만나고, 집안일 하고...2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뭐가 이리 바쁘지 모르겠어요. 요새 노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 전 우울증이 올 틈도 없이 바쁘네요."

박 회장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 보훈회를 조직해 평생 전국 사찰 불사에 매진한 것, 자행회 회장이로서 장

애인 재물에 힘을 쏟은 것"을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남을 도우며 살다가 "그 사람 참 좋았다"는 기억을 남기고 가고 싶다는 박 회장은 다시 태어나도 불교와 인연 맺기를 발원했다.

나무아미타불 정군 기록일지에도 썼듯 박 회장은 85세에 편안한 죽음을 맞고 싶다고 했다. 무엇을 바라거나 원하는 것도 없이, 그저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이웃을 돕다 여생을 마무리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예전에는 절에 안가면 큰일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샌가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처요, 내가 있는 곳이 기도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나 적게 갖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서부터는 절에 간다 안간다 하는 개념조차 사라졌어요."

좋은 향기는 천리를 가듯,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시행을 펼친 그의 걸음 걸음에는 연꽃이 피고 있었다.

매일 아침 수행으로 지혜의 눈 떠

박 회장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지금도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돌보고 신문을 읽는다. 요즘에는 손이 저려 <금강경> 사경은 잠시 쉬고 있다. 대신 2012년

이나는 기자 oasis1963@hyunbul.com

전법일기

전법에 인생한 이유

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것 같다. 변화해서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변화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다.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내겐 무엇보다 변화가 즐겁다.

가끔 어느 계절이 제일 좋냐는 질문을 받는데 늘 시원히 답하지 못한다. 사실 어느 계절을 좋으리 스스로 확신하기 힘들다. 봄이 오면 봄처럼 싱그러운 상상을 하고, 여름이 오면 녹음의 설레임이 가득하고, 가을이 오면 가을의 그리움, 겨울이 오면 눈 덮인 산하의 차가운 겨울의 추억에 가슴 설레인다.

가끔 지나친 선교활동으로 세상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그럴 때 마다 자꾸 계절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이 최고인

지 않을까? 무언가 우리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구멍이 뽕 뚫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왜 많은 불자들이 스스로 불교적 신념에 불확실해 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교리에 머물게 하는가? 자신이 확신하는 신념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해서 공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삶의 기쁨과 환희로운 경지를 체득하고 그러한 기쁨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려는, 함께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 좋다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학습 할 것이고, 진정 부처님이 제시한 길이 지고지순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길임을 확신한다면 정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따



그림·박구원

냥 떠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참으로 자신의 생각에 묻혀서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만이 최고라고 우기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하지만 불교는 이와 너무나 반대적인 모습이라 당황스럽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부여된 의무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증만한 행복을 이웃에게 전해주려는 자비의 마음이 자연스러운 전법의 삶이 될 것이다.

연건가 부산지역 포교사들이 참배 왔다. 법문을 하던 중에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포교한 사람이 몇 명이나고 물어 보았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다.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명색이 조계종 포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포교사들 60명 가까이 모였는데 1년 동안 단 1명에게도 전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숨이 탁 멎어 드는 느낌이었다. 너무도 어이가 없어 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한명이 큰소리로 12명을 불교에 입교시켰다고 했다. 모두들 놀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그것이 다였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을 살다 가신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부여된 의무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증만한 행복을 이웃에게 전해주려는 자비의 마음이 자연스러운 전법의 삶이 될 것이다.

최후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말이 있다. 죽어서 천당을 가기위한 삶을 사는 것 보다는 부처님처럼 이생에서 느끼는 행복과 아름다움을 서로 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불자들은 전법에 이토록 인생 할까? 우스꽝스러운 정도로 자신의 종교에 집착하여 허우적대는 모습이 좋아 보일 리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가진 종교적 신념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

그래, 또 누가 와서 어느 계절이 좋냐 물으면 달가우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주고 싶다. 또 누가 어설픈게 전도해 온다면 이제 당신이 믿는 종교보다 더 위대한 미래의 종교를 믿는다고 해주어야겠다.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since 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이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070-7425-0518 FAX.(051)508-0101 H.P.011-554-2988

◆농협: 0515-8888-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12월 / 6절

• 12절(벽결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6절(벽결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cm × 31cm



한지달력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상호인쇄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650** 원
• 규격 : 9.5cm × 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450** 원
• 규격 : 8.9cm × 9.5cm